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3월 16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소상공인 정 책 과	담 당 자	• 소상공인정책팀장 안수경 ☎ 440-4246 • 담당자 강홍일 ☎ 440-421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 2022년 채무조정 지원 사업...2억4,800만원 예산 투입 -
- 직업·소득·재산·상환방법·상환기간 고려해 최적의 해결방안 제시 -
-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지난 3년간 1,453명 2,387억 채무조정 지원 -

인천시가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다.

인천광역시시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2022년도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조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것을 감안해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에서는 직업, 소득, 재산, 상환방법,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금융 소외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자(중위소득 125% 이하) 등 기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액 2억4,8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시민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715-5971)에 전화상담 후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서민을 위해 적극적인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9,651명에게 채무해결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 중 1,453명에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했다.

특히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4,062명이 채무조정상담을 받았다.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파산이 1,214명(84%), 개인회생 66명(5%), 워크아웃 51명(4%), 기타122명(8%) 등으로 개인파산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31%, 60대가 34%, 60대 이상이 12%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또한 채무발생 원인으로서는 소상공인 사업실패(57%)가 가장 많았으며 생활비(18%), 보증(14%), 사기(8%), 기타(3%)순으로 나타났다.

〈사진〉 채무조정 포스터

사진

채무조정 포스터



www.insupport.or.kr/finance

상고직능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채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시민들에게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지원해드립니다

채무조정(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비용지원

지원대상	인천시민 (중위소득 125% 이하)
지원절차	채무상태 진단 >> 채무조정서류준비 >> 변호사연계
지원기간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방법	전화 032-715-5272 이메일 icfinance@naver.com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 금융복지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 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인천시민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인천시에서 설립한 기관입니다.